

김순옥 작가가 돌아왔다! SBS 특별기획 〈언니는 살아있다!〉

4월 15일(토) 첫 방송

새 SBS 특별기획 〈언니는 살아있다!〉가 4월 15일(토) 저녁 8시 45분에 첫 방송된다.

〈언니는 살아있다!〉는 한낱한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뺨 없고, 돈 없고, 세상천지 의지할 데 없는 세 여자의 자립갱생기로, 여성들의 우정과 성공을 그린 '워맨스' 드라마다.

〈아내의 유혹〉, 〈왔다 장보리〉, 〈내 딸 금사월〉 등 중독성 강한 드라마를 쓴 김순옥 작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 〈상류사회〉 등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최영훈 감독이 의기투합했다.

〈언니는 살아있다!〉는 김순옥 작가와 배우 장서희의 9년만의 만남으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사람은 〈아내의 유혹〉을 함께하면서 4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장서희는 “민들레가 〈아내의 유혹〉 민소희에 이어 제2의 인생 캐릭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작품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장서희가 맡은 민들레는 한때는 톱스타의 영광을 누렸지만 지금은 퇴물 취급 받는 한물간 여배우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공주처럼 떠받들어 키워준 엄마가 바로 자신의 스토크 때문에 죽자, 민들레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커리어우먼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오직 딸에게만 집중하며 살았던 바보 같은 엄마 김은향 역은 오윤아가 맡았다. 김은향 역시 믿었던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사랑하는 딸이 죽자, 복수의 칼을 갈게 된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문방구를 운영하는 동네 공식 오지라퍼 강하리 역은 김주현이 맡았다. 강하리는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던 날, 남편을 사고로 잃고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

전혀 다른 나이와 환경의 세 여자를 엮어버린 양달희 역은 다솜이 맡았다. 달희는 평생 가난과 함께하다 돌이킬 수 없는 악의 길을 걷게 되는 인물로, 4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들레와 은향, 하리의 운명을 바꿔 놓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달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다가 배신당하는 남자친구 설기찬 역은 이지훈이 맡았다. 기찬은 고아로 자라나 능글맞고 반죽 좋기로 대한민국 1등이지만 달희의 배신과 친구의 죽음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공룡그룹의 트러블메이커이자 강하리와 엮이게 될 재벌 3세 구세준 역은 조윤우가 맡았다. 이밖에도 김수미, 손창민, 안내상, 양정아, 박광현, 송중호, 황영희, 변정수, 손여은, 성병숙, 진지희 등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이 드라마를 뒷받침한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세 여자가 서로 위로하며 고통 속에서 일어나,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사랑과 위로를 찾아가는 SBS 특별기획 〈언니는 살아있다!〉는 4월 15일(토) 1~2회가 방송된다.





‘모비딕’, 모바일에 더욱 최적화된 4色 콘텐츠 신규 론칭!

최근 누적 조회 수 1억 뷰를 돌파하며 ‘모바일 대세’임을 입증한 모바일 브랜드 ‘모비딕’이 4개의 신규 콘텐츠를 연이어 선보이며 기세를 이어간다.

01 3분 안에 마음을 움직인다 - 모바일 드라마 <시 스토리>



4월 10일(월) 처음 공개된 <시(詩) 스토리>(기획: 은지향)는 모비딕이 최초로 선보이는 드라마 콘텐츠다. 촌철살인으로 유명한 SNS 시인 하상욱의 시를 모티브로, 3분 만에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스토리를 그려낸다. 매주 월, 화 아침 7시 30분에 공개되는 ‘아침 연속극’이라는 파격적인 콘셉트와,

I.O.I 소혜의 첫 드라마 주연작으로 벌써 온라인에서 관심이 뜨겁다.

02 레인보우 지숙의 뷰티 솔루션 토크쇼 <美친 3담소>



4월 말 공개 예정인 <美친 3담소>(연출: 옥성아)는 ‘뷰티 멘토’ 황민영 기자가 시청자들의 다양한 뷰티 궁금증을 직접 체험해보고 해결해주는 뷰티 솔루션 토크쇼다. SNS로 시청자들의 뷰티 고민과 궁금증을 받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해주는, SNS에 최적화된 콘텐츠다.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파워 뷰티 블로거 지숙과 SBS의 김윤상 아나운서가 뷰티 패널로 함께한다.

워 뷰티 블로거 지숙과 SBS의 김윤상 아나운서가 뷰티 패널로 함께한다.

03 셀럽과 똑같은 분장으로 만난다 <박나래의 복붙쇼>



5월 중 공개될 <박나래의 복붙쇼>(기획: 은지향)는 모비딕과 SKB가 손잡고 공동 제작하는 프로젝트 1탄이다. 감쪽같은 인물 분장으로 큰 화제를 모은 ‘분장의 神’ 박나래가 정치, 문화, 예술계의 핫한 셀럽과 똑같은 분장을 하고 만나는 ‘신개념 인물복사 토크쇼’다. ‘복붙’은 ‘복사해서 붙여넣기’의 줄임말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도플갱어 샷’으로 비주얼 쇼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의 줄임말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도플갱어 샷’으로 비주얼 쇼크를 선사할 예정이다.

04 오로지 조회 수로 승부 <조회 수 배틀 태그 매치>

5월 론칭 예정인 <조회 수 배틀 태그 매치>(연출: 소형석)는 ‘정글 같은 모바일에서 가장 먹히는 영상’을 찾는 본격 자본주의 SNS 극한 경쟁 콘텐츠다. 다양한 출전 선수가 SNS에 콘텐츠를 올리고, 오로지 ‘조회 수’만으로 승패를 가린다. SNS 영상의 고수들이 앞 다퉈 출전을 준비하고 있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모비딕’은 더욱 진화한 모바일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온라인 상에서 큰 사랑을 받은 <양세형의 쏘터뷰>, <김기수의 예살그살>, <I.O.I의 괴담시티>를 이을 히트작을 기대해 본다.

SBS, 뉴욕 브로드웨이 입성

공동 프로듀스 뮤지컬 <아나스타샤> 전석매진 기염



SBS가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아나스타샤>가 3월 23일(목),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막을 올렸다.

뮤지컬 <아나스타샤>는 20세기 폭스의 동명 애니메이션 영화를 원작으로,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녀 아나스타샤의 일생을 그린 작품이다. 유명 극작가 테런스 맥널리(Terrence McNally), 작사가 린 아렌스(Lynn Ahrens), 작곡가 스티븐 플래허티(Stephen Flaherty) 등 토니상에 빛나는 창작자들이 참여하여 기획 단계부터 큰 기대를 받았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다. <아나스타샤>는 공연 첫날부터 전석매진을 기록, 브로드웨이 무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당초 10월 1일까지 예정되었던 공연이, 관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첫 공연 직후 2018년 1월 7일까지 추가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 러시아 황녀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치열한 브로드웨이의 작품 경쟁 속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흥행 성적에 따라 몇 년 동안 공연을 지속하는 브로드웨이의 관행을 볼 때 앞으로가 특히 기대되는 대목이다.

SBS 문화콘텐츠사업팀은 지난해 겨울부터 해당 뮤지컬에 대해 투자를 준비해왔다. 그간 꾸준히 문화 사업에 투자하며 국내 뮤지컬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으나,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익 활로 창출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SBS는 향후 브로드웨이 투자자로 활동할 기반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우수 작품의 한국 공연 IP를 확보할 길을 열게 됐다. SBS 문화콘텐츠사업팀은 앞으로도 국내외의 킬러 콘텐츠를 발굴, 기획하여 방송 외적으로도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러브FM <정봉주의 정치쇼>, 인기 업고 30분 확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방송되던 러브FM <정봉주의 정치쇼>(연출: 김삼일, 손승욱)가 4월 10일(월)부터 방송시간을 30분 확대하여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방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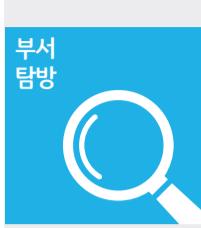
쉽고 재미있게 정치를 이야기하는 <정봉주의 정치쇼>는 방송을 시작한 3월 둘째 주에 바로 팟캐스트 순위 1위(아이튠즈 기준)에 오르는 등 청취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시사라디오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전 국회의원이자 국내 1호 폴리테이너인 정봉주는 방송 내 친근하고 유쾌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어려운 이야기 말고, 쉽게 이야기 해봐요”를 외치며 쉬운 정치시사 토크쇼를 유도한다. <정봉주의 정치쇼>는 오전 11시대 유일한 정치시사 프로그램으로서 2049, 특히 30~40대 주부 청취자에게 딱딱하고 어려운 정치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정봉주의 정치쇼> 생방송 현장도 4월 3일(월)부터 실시간으로 <스브스뉴스>를 통해서 중계되고 있다. <스브스뉴스>는 페이지 ‘좋아요’ 수가 33만 명을 뛰어넘는, 탄탄한 매체력을 가진 소셜미디어다.

웃으면서 즐기는 정치만담 토크쇼 <정봉주의 정치쇼>는 SBS 고릴라앱은 물론 <스브스뉴스>를 통해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들을 수 있다.





SBS 뉴미디어국 콘텐츠의 전략사조경부

- 뉴미디어뉴스부

뉴미디어뉴스부가 하는 일은?

크게 3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PC와 모바일 등의 SBS 뉴스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고 포털 등의 제휴사와 협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용자들이 SBS 뉴스 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소식과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편집팀의 경우 24시간 교대 근무하며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등 SNS 플랫폼도 관리, 운영하고 있다.

보도본부 내 각 파트에서 생산한 콘텐츠의 유통 뿐 아니라 <리포트+>, <뉴스픽>, <영상픽>, 그리고 제보영상 등의 콘텐츠도 자체 제작해 서비스한다.

덧붙여, SBS 뉴스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페이지를 개편하거나 개선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콘텐츠 유통 전략을 고민하고 수립하는 일도 하고 있다.

자체 제작 콘텐츠를 소개 해 달라.

<리포트+>, <뉴스픽>, <영상픽>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리포트+>는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뉴스의 맥을 짚어주는 콘텐츠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이 따로 연재 코너를 만들 정도로 반응이 좋다. 충분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 친절한 설명을 그래픽을 곁들여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사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출발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일 2~3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픽>과 <영상픽>은 일종의 스낵 콘텐츠로, 딱딱하고 어려운 소재가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재미나 흥미, 따뜻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소재나 이야기를 다룬다. 시청자가 제보해준 사건·사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이용해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부서 구성은?

부장을 포함해 6명의 기자와 기획 개발, 편집, 디자인, 작가, VJ, 프리랜서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일한다. 직종이 다를 뿐 아니라 소속도 다양하다. 그러나 목표는 같다.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해 뉴미디어 분야에서 최상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부서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뉴미디어뉴스부 편집팀은 24시간 깨어있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뉴스의 의미, 중요도 등을 판단해 기사를 적절하게 편집하고 배열한다. 긴급 뉴스 발생 시 속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뉴스 특보가 발생하면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서도 라이브 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카카오톡 등을 관리하는 SNS팀은 플랫폼별로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해 최적의 콘텐츠를 선별해 공급한다.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 정도 등을 점검하며 콘텐츠 공급량과 시기도 수시로 조절한다.

<리포트+> 등을 생산하는 콘텐츠랩팀의 경우 매일 오전 9시 회의를 열어 제작할 아이템을 선정한다. 전날 <8뉴스> 콘텐츠에 대한 리뷰로 시청자 반응을 분석하고,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토론한 뒤 아이템을 선정하여 제작에 들어간다.

부서 자랑 좀 해 달라.

뉴스 계정의 경우 페이스북 구독자 수 90만을 넘어 언론사 가운데 1위다. 조회 수도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단연 1위로, 전체 언론사 가운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SBS 뉴미디어 콘텐츠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이용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업계 최고라는 자부심 속에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부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편집과 기획, 개발, 콘텐츠 제작, 플랫폼과 트렌드 분석 등 혼자 하는 것보다 동료나 다른 파트와 협업하는 업무가 많은데 서로 배려하고 기꺼이 희생하려는 동료애를 발휘하고 있어 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요즘 부서의 핫이슈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선 특집 페이지와 투/개표 페이지를 기획하고 개발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다. 특히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아이보트챌린지'와 '나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라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느라 부원들이 땀이 나도록 열심히 뛰고 있다. 캠페인에 사원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안중범-박채윤 통화 단독 보도 김정우 기자 '이달의 기자상'



보도국 시민사회부 김정우 기자가 3월 31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제318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김정우 기자는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과 안중범 전 수석의 통화 내용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안중범 전 수석이 박채윤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이 녹취록은 파문을 일으켰고, 박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김관진, 원종진 기자 '이달의 방송기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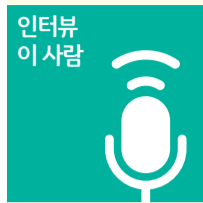
보도국 시민사회부 김관진, 원종진 기자가 3월 28일(화) 방송회관에서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선정하는 제 101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기획보도부문을 수상했다. 김관진, 원종진 기자는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방치된 보육원의 열악한 급식 실태를 연속 보도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살수차 미스터리' 안운태 PD 8번째 수상



<그것이 알고 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 - 백남기 사망사건의 진실' (연출: 안운태) 편이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가 주는 '언론인권상'을 받았다. 이로써 '살수차 미스터리'는 지난해 10월 22일 방송후 지금까지 8개의 상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시상식은 3월 30일(목) 서울 관훈동 신영연구기금에서 열렸다.



드론 송수신기로 헬기 생방송... 10억 절감

SBS A&T 콘텐츠제작지원TF 정경근 선임매니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가던 3월 12일, 각 방송사는 헬기를 띄워 경쟁적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SBS는 아이디어 하나로 타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화면을 얻어냈다. 자세한 내용을 A&T 콘텐츠제작지원TF 정경근 선임매니저에게 알아봤다.

어떤 아이디어인가?

헬기에서 찍은 영상을 라이브로 방송하려면 송출 장비를 장착해야 한다. 그 장비 값만 10억 가까이 든다. 거기에도 장비가 무거워서 비행시간이 2시간에서 30분 줄어든다. 비용과 비행시간 문제로 SBS는 장비 구입을 포기했고, 따라서 그동안 SBS는 헬기 생방송이 없었다. 콘텐츠제작지원TF는 SBS 헬기 라이브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다가 드론에 장착하는 작은 벽돌 크기의 영상송수신기를 헬기에 장착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반포대교 상공에 헬기를 띄워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던 날, 김학모 영상취재기자가 탑승한 헬기에 송신기를 장착했다. 사저 근처의 건물 옥상에는 수신기를 설치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SBS 헬기에 장착한 영상송신기가 보내는 영상을 옥상에서 받고, 다시 그 영상을 본사 뉴스센터로 연결하여 헬기 생방송을 완성했다. 수백만 원짜리 영상송신기로 타사 10억짜리 장비에 대응했다.

콘텐츠제작지원TF는 무슨 일을 하는가?

헬리캠, 짐벌 촬영, 타임랩스, 타임슬라이스, 와이어캠,

RC 슈팅카, 고속 촬영 등의 특수한 영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A&T 영상본부 내의 TF이다. 영상1팀, 영상2팀, 영상취재팀에서 특수 촬영을 전담하는 정경근, 김대철, 신성화, 김정기 4인이 모여 SBS 프로그램의 특수 촬영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TF에서 한 일은?

TF가 만들어지고 2년 반 동안 1,000회 이상의 특수 촬영을 했다. 특히 SBS 드라마에 헬리캠 촬영으로 다양한 앵글을 제공했다. 항공 촬영은 촬영영역이 넓은 대상을 촬영할 때 적합하며, 와이드한 느낌의 롱 샷을 표현할 수 있다. 교양, 예능프로에서 등장하는 헬리캠 영상도 콘텐츠제작지원TF에서 대부분 촬영했다. 그 외에도 타임슬라이스, 타임랩스, 와이어캠 촬영 등으로 극적인 느낌을 극대화하고 현장감을 표현했다.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특수 영상이 활용됐다. 선거방송에서 후보들이 마라톤을 하는 장면은 아스팔트 바닥에 거의 붙어서 촬영하는 극로우(low) 샷을 RC 자동차에 짐벌 카메라를 장착한 슈팅카로 촬영했다.

앞으로 계획은?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영상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서 보다 창의적인 영상을 SBS 프로그램에 제공할 계획이다.



1분기 특종상 등 시상식



4월 7일(금) 보도본부에서 2017년 1분기 특종상과 기획보도상, 뉴미디어상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특종상

- 금상** A&T 영상취재팀 제일 특별취재팀 박민하, 최우철, 박수진 시민사회부 법조팀
- 은상** 시민사회부 이세영 시민사회부 김정우
- 동상** 뉴스제작1부 박세용, 장훈경 정책사회부 송인호, 조동찬, 유덕기

기획보도상

- 금상** 시민사회부 법조팀
- 은상** 시민사회부 김관진, 원종진
- 동상** 경제부 손승욱, 정혜경

뉴미디어상

- 금상** 생활문화부 류란, 뉴스제작1부 조을선
- 은상** 스포츠부 주영민
- 동상** 정치부 남승모

미래한국리포트 10여년의 연구 결과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미래' 발간

보도본부 미래부에서 지난 10여년간의 <미래한국리포트>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미래'(미래부 지음/이창재 역음, 한울)를 출간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전환기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연구 분석했다. 먼저 제1부에서는 전환기 대한민국의 명암과 위기의 원인을 분석한다. 제2부에서는 한국 사회 변화 방향을 사회의 질을 통해 모색해본다. 우리보다 먼저 위기를 경험하고 극복한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의 질'은 GDP 같은 경제지표로 잡아낼 수 없는 사회발전의 척도로서 전체 사회의 발전이 개인의 역량개발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높은 사회의 질을 위해서는 자본 등 경제적 요소와 제도, 정책, 문화와 같은 비경제적 요소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제3부 교육, 제4부 복지, 제5부 일자리, 제6부 환경, 제7부 거버넌스에서는 분야별로 착한 성장 사회를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SBS 스포츠 친절한 중계를 위한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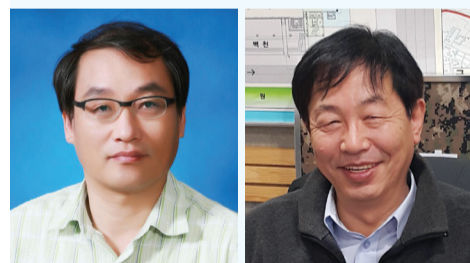


SBS스포츠는 3월 29일(수) 상암동 프리즘타워 컨퍼런스룸에서 친절한 중계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이 실감나게 스포츠 방송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 시간이다.

강사로 초청된 한국복지방송 심준구 대표는 시각장애인의 시청행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화면해설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직접 시각장애인이 되어 스포츠 중계를 느껴보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입장에서 제작되는 스포츠 중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중계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SBS스포츠 캐스터, 제작진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장애인이 스포츠 콘텐츠를 즐기기에는 불편함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 제작진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송출기술팀 송정한 직원만족팀 최춘식 사우 안식년



송출기술팀 송정한 선임매니저 직원만족팀 최춘식 매니저

송출기술팀 송정한, 직원만족팀 최춘식 사수가 정년을 1년 앞두고 5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간다.

송정한 선임매니저는 창사와 함께 TV주조정실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주조 기술감독을 거쳐 DMB주조 기술감독으로 일했다. 송정한 선임매니저는 26년간 교대근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안정적인 프로그램 송출에 기여했다. 퇴직 후에는 양봉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최춘식 매니저는 1992년 총무부로 입사하여 차량주차 및 중계차량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여의도 사옥 시절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열 주차방안을 실행했고, 긴급 중계차량 운행에 대비한 5분 대기조를 신설 운영했다. 2012년부터는 직장예비군 소대장직을 맡아, 2015년 양천구 민관군경 통합방위 유공자로 선정되어 구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 본 사보는 SBS 신뢰체와 창의체로 만들었습니다.